

## 活用과 曲用에서의 形態論과 音韻論

—音韻現象에 대한 非音韻論的 制約의 克服을 위하여—

姜 稔 錫

- |                    |                           |
|--------------------|---------------------------|
| I. 머릿 말            | IV. 音韻現象에 대한 非音韻論的 制約의 克服 |
| II. 活用과 曲用的 形態論    | V. 맺 음 말                  |
| III. 活用과 曲用에서의 音韻論 |                           |

### I. 머릿 말

#### 1.

국어의 이른바 曲用, 活用 현상은 形態論이나 音韻論에 많은 연구과제를 부여한다. 양자 모두 형태소들이 결합하여 더 큰 言語單位를 형성하는 절차이며, 형태소의 결합에서는 여러 音韻現象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活用/曲用, 語尾/助詞 등의 상이한 명칭에서 보듯이 活用과 曲用은 형태론적으로 분명히 구별되어 왔다. 그러나 이른바 ‘변형생성이론’에 의존한 최근의 형태론의 논의에서는 活用과 曲用을 屈折(Inflection)이라는 동일범주로 묶어 派生(derivation)과만 구별하려는 시도가 보이며,<sup>1)</sup> 반대로 음운현상의 논의에서는 活用과 曲用的 差異가 강조되는 기이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어떤 현상들을 공통으로 묶느냐, 구별하느냐 하는 것은 어떤 차원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통합이나 구별 등의 근거는 具體的인 국어의 언어현상에서 얻어져야 하며, 그래야만 그 결과가 객관적이고 文法の 記述이나 理解에 유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음운현상의 논의에서 活用과 曲用的 구별이 강조되는 것은 자칫 이틀이

1) ‘조사’라는 명칭 대신 ‘體言語尾’ 등의 ‘語尾’라는 用語의 사용도 그 한 예라 할 수 있다.

음운론적으로 구별되는 것이라는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그러나 분명히 活用과 曲用은 음운론적 기준에 의해 구별되는 것은 아니고 형태론적 기준에 의해 구별되는 현상이다. 따라서 당연히 形態論의 분야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活用과 曲用の 구별(차이) 문제가 엉뚱하게 音韻論의 영역으로 넘어오면, 音韻論에서는 자칫 固有의 論理까지 혼들리는 혼란을 겪을 수도 있다.

## 2.

최근의 음운론의 여러 논저들에서 “音韻現象에 非音韻論的 制約이 作用한다”는 지적과 함께 음운현상의 기술(규칙화)이나 설명에 非音韻論的인 조건들이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태도(論理)는 음운현상의 기술을 정밀화하고, 例外를 없애려는 노력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結論(論理) 자체는 肯定的인 면보다는 否定的인 요소를 더 많이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音韻現象에 非音韻論的 조건이 작용한다”는 論理는 마치 “동근 사자형”과 같이 앞뒤가 맞지 않는 명백한 모순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非音韻現象과 구별된 ‘音韻現象’의 개념에는 이미 非音韻論的인 조건이 작용할 여지가 배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말로 非音韻論的 조건이 작용하는 현상이라면 그것은 이미 音韻現象이 될 수 없다.

음운현상을 제약한다고 지적되는 非音韻論的 조건들 중의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活用, 曲用 등의 形態論的 조건이다. 즉 活用과 曲用에서 음운현상이 탈리 실현된다는 지적이 있는데, 여기서도 우리는 중대한 절차상의 오류를 지적할 수 있다. 만약에 活用과 曲用이 분명 형태론적으로 구별된다면, 그 차이는 음운론의 작업에서 다당히 음운규칙의 적용 이전 즉 ‘기저형 설정’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그런데 실제 “음운현상에 대한 비음운론적 제약”의 논의들을 보면 형태소를 분석하고 각 형태소의 기저형을 정하는 형태론적 작업에서는 活用과 曲用을 동등하게 즉 전혀 구별하지 않다가,<sup>2)</sup> 뒤늦게 음운규칙의 적용/비적용 여부를 설명하기 위하여 새삼 活用과 曲用の 차이를 강

2) 曲用形 ‘잡은’과 활용형 ‘잡은’의 기저형이 모두 ‘/잡+은/’으로 표시된다. 만약 活用과 曲用이 形態論的인 차이가 있다면 다당히 그 차이가 기저형에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하거나, 음운규칙에 비음운론적인 조건을 결부시키는 모순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活用과 曲用을 구별하는 경우라도, 그 차이가 무엇인지 또는 어느 단계에서 그 차이가 언급되어야 하는 것인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피상적으로만 구별하기 때문일 것이다.

본 논의의 일차적인 관심은 活用과 曲用이 어떤 현상에서 차이를 보이며 그 차이는 근본적으로 어떤 요인에서 비롯되는 것인지를 밝히는 일이며, 궁극적으로는 活用과 曲用の 차이가 정말 音韻現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만약에 기왕에 “非音韻論인 制約을 받는다”고 지적된 音韻現象들이 음운론적으로 설명이 되거나, 해당조 音韻現象(規則)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다면, 우리는 더이상 논리적으로 하자가 있는 “音韻現象에 대한 非音韻論的條件”이라는 표현을, 前提로서든, 結論으로서든 제기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도 좋을 것이다.

우리가 다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논의에 등장하는 모든 論理(理論)들이, 특히 기조이론일수록, 가능한 한 具體的인 증거(언어현상)를 토대로 수립되고 전개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불확실한 전제에서 출발하는 논의는 결국 불확실성을 벗어날 수 없으며, 자칫 순환논리에 빠지는 것을 자주 명철할 수 있기 때문이다.<sup>3)</sup>

## II. 活用과 曲用の 形態論

### 1. 형태소 구조제약과 재구조화

현대국어론을 관찰해 보면 체언은 용언어간과 구별되는 몇가지 특징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 ① 어간말에 ‘ㄷ, ㅎ’이 나타나지 않는다.
- ② 변칙(비자동교체)어간이 거의 없다.

3) 모든 理論들이 조금씩은 추상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지만 특히 민형생성이론의 ‘기지력’이런 것도 마찬가지다. 물론 필자의 과분 탓이지만, 이전의 ‘표면형’ 중심의 논의들이 可觀的인 科學的인 노력이었다면 ‘기지력’이란 바치 ‘보이지 않는 신의 섭리’처럼 느껴지는 것이다. 學科學的인 신의 섭리는 얼핏 과학이 해결키 어려운 문제를 쉽게 해결해 주는(?) 것 같으나, ‘신의 섭리’ 자체가 쉽게 설명되기 이전에는 결국 아무 것도 해결되지 않은 것이다.

③ 중자음으로 끝나는 어간이 적다.

※ ④ 자립형태소이다.

현대국어만을 대상으로 한 공식적인 관찰에서는 이런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을 뿐, 이 차이가 우연한 것인지 혹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것인지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다. 그러나 통시적으로 추적해 보면 이런 차이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또 우연히 생긴 것도 아니며, 규칙적인 변화의 결과로 비롯된 것임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15세기 국어에서는 우선 ‘ㄷ’ ‘ㅎ’을 末音으로 가진 체언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뜻(意) 변(友) 못(釘) 붓(筆) 땅(地) 하냥(一) 나라(國) 등

또한 용언과 동일한 비자동적 어간교체의 예도 많이 보이며

나모~남, 무를~몰르 노르~놀으 등

어간말 중자음의 예도 현대국어보다는 훨씬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15세기 국어 및 그 이후의 통시적인 변화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현대국어로 오면서 用言과 體言 즉 活用과 曲用 paradigm 사이에 본래 없었던 차이가 생기거나 혹은 적었던 차이가 심해졌다는 사실과 그러한 차이가 생기고 심해지는 직접적인 원인은 活用에서는 생기지 않는 일련의 변화들이 曲用에는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用言과 體言의 형태소구조상의 차이를 유발한 변화들 즉 曲用 paradigm에만 나타난 변화의 성격에 쏠린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냥’(一)의 ‘ㅎ’은 曲用 paradigm에서 사라졌는데 ‘ 좋-’(好)에서의 ‘ㅎ’은 왜 아직도 남아 있느냐 하는 것이다.

전체 曲用 paradigm에서 볼 때 어간말의 ‘ㅎ’탈락, 중자음>단자음 등의 통시적 변화는 시간적으로 그리고 그 성격에서 분명히 구별되는 2단계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어덥>여덥’의 경우를 보자.

/여덟/ :	여덟이	여덟은	여덟도	여덟과
① ‘ㅁ’ 탈락	—	—	[여덟도]	[여덟과]
②	[여덟이]	[여덟은]		

표면적으로는 ①이나 ② 모두 ‘ㅁ’이 탈락하는 현상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 성격은 아주 다르다. ①에서의 ‘ㅁ’ 탈락은 국어의 음절구조제약에서 비롯되는 음운현상인데(子音群簡素化) 이런 현상은 曲用的 경우만이 아니고 活用등 모든 경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②의 경우는 活用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뱃아→\*밭아) 이는 음운현상이 아니고, ①에서의 음운현상의 결과로 생긴 어간의 이형태 /여덟/에 다시 조사가 결합된 語形에 불과하다. 즉 ‘여덟비>여덟이’의 음운변화가 아니고 /여덟+이/라는 새로운 曲用形이 생겨 기존의 [여덟비]를 물리친 결과인 것이다. ②가 음운현상이 아니고 어간의 異形態에 조사가 다시 결합되는 절차에 의한 형태론적 현상이라는 사실은 어간말 환경에 따라 다른 조사가 결합되는 예들에서 분명히 알 수 있다. ‘하날>하나’의 경우를 보기로 한다.

/하날/ :	하나히	하나흔	하나토
① ㅎ탈락	[하나이]	[하나은]	—
②	[하나가]	[하나는]	[하나도]

모음간의 ‘ㅎ’이 탈락되는 것은 국어의 일반적인 음운현상이다. 그러나 ‘하나이’가 ‘하나가’로, ‘하나은’이 ‘하나는’으로 변한 것은 음운변화로는 상상할 수 없으며 ‘-가, -는’ 등의 조사가 ‘하나’라는 어간에 결합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때 /하나/라는 어간은, 본래의 /하날/이라는 어간에 조사가 결합된 ‘하나히’, ‘하나흔’ 등의 곡용형이 모음간 ‘ㅎ’탈락이라는 음운현상의 결과로 ‘하나이’ ‘하나은’ 등이 되고 이러한 곡용형들이 어간과 조사로 다시 분석됨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비로서 ‘여덟비>여덟이’의 변화 역시 ‘하나토>하나도’, ‘하나흔>하나은>하나는’ 등의 변화와 동일한 과정임을 짐작할 수 있으며, 음운현상이 아님을 단언할 수 있다.

통시적으로 /하날/이라는 기존 어간에서 생긴 곡용형들이 소멸하고 /하나/

라는 새로운 어간에 조사들이 결합한 어형들이 生命力을 가진 데 우리는 이 현상을 보통 ‘어간의 재구조화’라고 부른다. 재구조화란 결국

- ① 음운변화(異形態 發生)
- ② 異形態와 조사와의 결합(신형 paradigm 발생)
- ③ 기존 paradigm의 소멸(단어 혹은 paradigm 간의 명분 경쟁)

이러는 3단계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다.

예언의 재구조화 과정을 단계적으로 분명히 구분할 때 우리는 活用과 曲用의 차이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고, 또한 걸정한 音韻現象은 活用과 曲用에서 결코 달리 실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재구조화 과정의 경우에서도 보듯이 ①단계의 音韻變化에서는 活用과 曲用의 아무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②단계의 형태론적 과정에서 비로소 活用은 누락되고 曲用에만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다. 15세기 국어에서의 이른바 ‘특수어간의 교체’들의 동시적 변화는 그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즉 ‘나보~남, 오부~울리’ 등의 어간교체물 유별시킨 음운현상들은 曲用과 活用に 모두 적용이 되었지만, 15세기 이후 體言의 어간이 單-化되는 것은 형태론적 과정이므로, 用言은 그 변화에서 누락되어 현재까지도 대부분의 어간교체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만약 活用과 曲用이 形態論的 條件을 달리한다면, 두 경우에서 형태론적 현상이 달리 나타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2단계 변화 즉 형태론적 과정의 특징은, ①단계 즉 음운변화에 의한 어간의 교체현상을 지양하고 어간을 통일을 指向한다는 점이다. ‘어간부类的 감소’라는 통일을 부여할 수 있는 어간의 단일화 현상이 曲用과는 달리 活用に서는 잘 발생하지 않는 까닭은 무엇인가?

②단계의 과정이 음운현상이 아닌 ‘형태소분석’(새로운 신과 결합) 및 ‘재복음’이라는 다소 복잡한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하는 까닭도 바로 活用に서는 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국어의 活用과 曲用은 어떤 차이가 생길 수 있을만큼 형태론적인 성격을 분명 달리하고 있다.

## 2. 자립형태소와 의존형태소

음운변화에서 비롯된 어간의 異形態들을 다시 통일시키는 현상이 曲用

paradigm에서는 진행되지만 活用 paradigm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암시하듯이, 活用과 曲用은 분명 동질의 형태소 결합은 아니다.

먼저 일반 국어화자의 언어수행이라는 면에서 볼 때, 體言의 曲用이란 어간과 조사의 ‘결합’이나 ‘분리’가 항상 필요하고 또 실제 자유로운 것임에 비하여 用言의 活用이란 어간과 어미의 분리가 불필요하고 사실상 분리가 어려운 형태소 결합이다. (물론 링커스 분리의 必要性과 難易度는 상호순환적으로 적용할 것이다.)

曲用에서 어간과 조사의 분리 인식이 가능하고 필요한 것은 어간이 조사 없이 단독으로 쓰일 수 있고(自立形態素) 또한 조사들이 결합되는 경우라도 대부분의 격조사들이 수의적으로 생략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用言은 항상 어간, 어미가 결합된 상태에서만 쓰인다(의존형태소).<sup>4)</sup> 따라서 형태소를 분리해 따로 따로 인식할 필요가 적으며 그 기회도 없다.

또한 曲用의 경우에는 새로운 어간(體言)이 계속 생겨난다는 사실에도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즉 새로운 사람, 사물 등이 계속 생기고, 그에 대한 명칭(體言)이 계속 만들어지며, 새로운 체언이 생기면 곧 조사와 결합되어야 하므로 체언, 조사를 분리해서 인식하고 또한 자유롭게 결합시킬 필요성은 계속 유지된다. 그러나 새로운 동작이나 상태는 잘 생기지 않으므로<sup>5)</sup> 따라서 새로운 어간이 빈번히 생기지 않는 用言活用の 경우는 그만큼 어간과 어미를 분리해서 인식할 필요도 적다. 또한 기존 활용형에서도 어미가 전혀 생략되지 않으므로, 활용형이 심한 음운변화를 겪으면 어간과 어미의 경계구분도 자연 어둡게 되고 따라서 새로운 어간의 등장도 더욱 어둡게 되는 악순환이 생기게 된다. 이제까지 한국어에 수많은 漢字語나 西歐語 등이 차용되었지만 그중에 活用語幹으로 차용된 예는 눈에 띄지 않는다는 사실은 국어의 活用과 曲用的 차이와 관련하여 깊이 음미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活用과 曲用的 차이로 한가지 더 지적할 수 있는 것은 曲用的 경우는 어간의

4) 언더라이제어와의 비교나, 15세기 한국어에서의 활발했던 어간 형성(도보다, 죽었다 등) 등을 통해 국어의 용언 어간도 본래 자립성이 있었을 가능성이 추측되고 있다. 그렇다면 자립성은 없으면서 그 이후의 여러 형태론적인 변화에서 曲用과의 차이가 멀어질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5) ‘가마’와 ‘자동차’가 다르듯이 가마를 나는 농작과 자동차를 타는 농작도 다르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가마’와 ‘자동차’는 구별하지만, 이것을 이용하는 농작에 대해서는 ‘타다’라는 동사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소멸이란 곧 paradigm 전체의 소멸을 뜻하지만, 活用 paradigm 은 공동운명체가 아니고 각각의 活用形들이 독자적인 생명력을 가진다는 사실이다. 用言에만 존재하는 ‘불구어간’이라 불리는 예들은 그 좋은 보기가 할 수 있다.<sup>6)</sup>

결론적으로 活用과 曲用은 각 어간의 형태자질도 다르고(의존/자립), 어미의 기능도 다르며, 어간과 어미의 결합 성격도 다른 (필수결합/수의결합) 아주 이질적인 문법범주라 할 수 있다.

活用과 曲用이 형태론적으로 성격이 다르다면 형태론적 현상이 活用과 曲用에서 달리 발리 발생하는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앞에서 살펴본 재구조화 현상은 바로 자유로운 형태소 분리 및 결합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曲用에서는 꾸준히 진행되었으나 活用에서는 나타나지 않게 되고, 그 결과는 현대국어에서 체언과 용언 사이에 현저한 형태소구조상의 차이를 가져오게 되었다.

### Ⅲ. 活用과 曲用에서의 音韻論

活用과 曲用 사이의 형태론적 차이는 음운현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원칙적으로 순수 음운론의 영역에는 비음운적인 조건이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活用, 曲用에서의 음운현상에 대한 관찰이나 기술이 形態素分析을 전제로 한다는 사실과, 曲用에서 생기는 재구조화 현상 등이 음운현상과 간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우선 曲用과 活用에서의 音韻現象을 따로 나누어 고찰할 필요는 있다.

#### 1. 曲用에서의 音韻 現象

현대국어에서, 曲用에서는 活用の 경우보다 음운현상이 적게 지적된다. 즉 어간의 교체가 적은데, 그 까닭은 통시적으로 曲用に 音韻變化가 덜 발생했기 때문이 아니라 活用과 똑같이 음운변화가 일어나 어간교체가 생기더라도 曲用の 경우에는 형태론적 절차에 의한 어간 단일화(재구조화)가 계속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재구조화에 의한 어간 단일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과

<sup>6)</sup> 15세기에서는 完全動詞이었던 것이 몇몇 活用形의 소멸로 不具動詞가 된 예문이 있다. 洪允杓(1977) 참조.



적으로 음운변화의 조건에서 벗어나거나 음운변화의 흔적이 소멸되는 것을 뜻한다. 또한 여러 조사들이 음운론적 조건을 달리하는 복수형을 유지하고 있는 점도 曲用 에서의 음운현상의 발생을 줄이는 요인이 된다.

어쨌든 현대국어의 曲用에서 발견되는 음운현상들은 예외가 없고 음운 현상의 성격이나 조건이 분명하다는 점이 특징이다.

- ① 中和 및 硬音化  
빛+도→[빔도]                      질+과→[집과]
- ② 子音群單純化  
값+도→[갑도]                      탐+만→[당만]
- ③ 子音同化  
집+만→[집만]                      몸+과→[몽과]~[몸과]

曲用에서 발견되는 위의 현상들은 규칙화나 설명에 문제가 별로 없다. 즉 규칙에 대한 例外가 없어 “非音韻論的制約”이나 “규칙적용순위” 등의 추상적이고 불투명한 理論들을 전혀 들먹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기존의 논의에서, “活用과 曲用에서 음운현상이 달리 실현된다”는 지적을 좀더 정확히 말한다면, 그것은 “活用에서 나타나는 음운현상 중에는 曲用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것도 있다”는 내용이 될 것이다. 또한 生成音韻論에 입각한 논의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추상성’ ‘규칙순위’ 등의 문제도 국어에서는 모두 活用에서의 음운현상(異形態)에 대한 처리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막연히 “活用과 曲用에서 음운현상이 달리 실현된다”라고 하는 경우보다 “活用에서의 일부 현상들이 曲用에서는 실현되지 않는다” 처럼 분명한 方向性을 확보하는 것은 해결의 가능성을 한층 더 높여준다. 우리는 앞의 논의에서 曲用에만 발생하는 ‘재구조화’ 현상을 논의한 바 있으며, 재구조화 현상은 바로 음운현상에 대한 反作用으로, 음운현상의 흔적을 소멸시키는 것임을 보았기 때문이다.

## 2. 活用에서의 音韻 現象

Ⅱ장의 논의에서, 活用の 경우에는 曲用과는 달리 일반 언중들의 언어수행에서 어간과 어미의 형태소 분석이 행해지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그러한 관찰이 타당하다면 이는 음운론에 중대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活用に

시의 음운현상을 논하는 일차적인 전제가 형태소 분석인데, 일반 언종의 언어행위에서 각각의 형태소들이 분리되어 인식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현재 일반적인 생성음운론에서의 기본 전제 즉 각 형태소들의 ‘공시적인 기저형’ 및 형태소 결합에서의 ‘음운규칙’이 존재한다는 주장이 아무런 근거가 없음을 뜻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어의 ‘잇는구나, 이으세요, 그래도’ 등의 活用形들이 각각 몇 개의 형태소인지, 각 형태소의 기저형은 어떤 모습인지 결정하기란 국어학자에 게도 쉬지 않으며 더구나 그것을 증명하기는 더욱 어렵다. 하물며 일반 언종들이<sup>8)</sup> 공통의 기저형이나 음운규칙을 인지하고 있다는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엔 더욱 부자연스럽다.

그러면 현대 맞춤법이나 그동안의 논의들에서 活用的 경우에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어간과 어미의 분리 혹은 어간의 기본형(기저형)설정 또는 음운규칙의 설정 등에 일치를 보이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는 것인가? 아마도 통시적인 정보가 이용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을 것이다. ‘놓다’의 경우를 보자.

/놓-/ : 노코, 노차, 노아서 노으면, 노으니

우리는 위의 活用 paradigm에서 보통 어간을 /놓-/으로 설정하고 두 개의 음운규칙(유기유과, ‘ㅎ’탈락)을 설정한다. 문제는 이때의 어간(기저형)이나 음운규칙은 상호 의존적으로서 공시적으로는 이를 각각의 타당성을 진리 증명할 수 없다는 점이다. 아니 증명 이전에 ‘기저형’이나 ‘음운규칙’을 착상하기도 쉽지 않다. 왜냐하면 ‘ㅎ’은 전혀 표면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 ‘기저형’(‘ㅎ’의 존재) 혹은 ‘음운규칙’의 착상이나 그 타당성을 시사해주는 것은 바로 통시적 정보이다. 즉 통시적인 추적에서 우리는 문헌 자료에서, ‘노호니’ ‘노호면’ 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사별치용언’의 경우에서도 ‘ㅅ’의 존재는 통시적인 정보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그것은 통시적인 정보를 통해서 실

7) 실제로 음운규칙의 전제가 되는 형태소 분석이나 기저형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나 규칙들이 제시된 예가 드물다.

8) 물론 생성이론에서는 일반 화자가 아닌 ‘이상적인 화자’ ‘언어 수평’이 아닌 ‘언어능력’을 대상으로 한다고 전제하지만 그들이 논의하는 것은 결국 ‘일반 화자’들의 ‘언어수평’에 의한 자료일 뿐이다.

정된 ‘기지형’ 이다 ‘음운규칙’이 과연 共時的으로 별도의 유효한 가치를 가지느냐 하는 것이다. 바꿔 말하면 活用에서의 共時的인 ‘기지형’이나 ‘음운규칙’이 通時論에서의 내적재구를 통한 ‘고대단일형’이나 ‘음운변화’와 구별될 근거나 필요성이 존재하느냐는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의문에 대해 쉽게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적어도, 이제까지의 공시론적 논의들에서 보여준 ‘기지형’이나 ‘음운규칙’들이란 결국 통시론에서의 ‘고대단일형’이나 ‘음운변화’에 불과했다는 것과 따라서 본격적으로 통시론의 관점에 설 때 그동안 제기되었던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즉 음운규칙에 예외가 있다든지, 규칙간에 일정한 순위가 나타나는 것 혹은 ‘변칙용언’의 처리가 어렵다든지, 活用에는 曲用에서보다 훨씬 많은 음운현상들이 있다든지 하는 문제들은 통시적인 관점에서는 사실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구개음화, Umlaut 규칙 등에 예외가 나타나는 것들은 음운변화가 진행된 후에(즉 음운변화의 힘이 없어진 후에) 새로이 구개음화나 Umlaut의 경우와 동일한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이고, 규칙간에 순위가 생기는 것은 음운변화들 사이에 시간적인 선후가 있기 때문으로 아주 당연한 일이다. 또한 이른바 변칙용언(‘ㄷ’변칙, ‘르’변칙, ㅂ변칙 등)의 처리가 어려운 것은 이들이 통시적 변화의 산물로서 그 변화 시기가 문헌 자료가 없는 15세기 이전으로 소급되기 때문이다. 만약에 우리에게 현대국어 이전의 통시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자료가 전혀 없다면 ‘농다’의 예를 비롯하여 많은 경우가 변칙의 경우와 똑같은 처리에 놓일 것이다. 또한 曲用에 음운규칙이 적은 것은 음운현상에 대한 반작용이라 할 수 있는 재구조화가 통시적으로 계속 진행되어 음운변화의 흔적을 계속 지웠기 때문이다.

이처럼 通時的인 관점에서 自明한 사실들이 共時論에서 문제가 된다는 것은 결국 이제까지의 ‘活用的 共時音韻論’이 아주 불투명한 것이었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活用 paradigm에는 오랜 기간 동안의 음운변화의 결과들이 그대로 누적되어 있는 상태이며, 각 음운변화들은 각기 다른 시기에, 다른 음운체계에서 발생한 것인데 이들을 한 시점의 음운체계를 바탕으로 공시적인 음운현상으로 처리, 이해하려는 것은 애당초 무리일 것이다. 이런 무리

를 감행한(?) 논의들에서 얻어지는 결론들이란 자칫 순환론이나 증명될 수 없는 論理나 전제의 낱말이기 쉽다.

우리가 이제까지 지적한 活用과 曲用에서의 音韻現象의 성격이 다르다는 사실은, 活用과 曲用이라는 문법범주가 음운현상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것의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음운론 이전의 형태론적 전제에 관한 차이를 지적한 것 뿐이다.

이제 비음운론적 제약을 받는다고 지적된 음운현상의 예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 Ⅳ. 音韻現象에 대한 非音韻論的 制約의 극복

### 1. 音韻現象과 非音韻現象

음운현상에 과연 비음운론적인 조건들이 작용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음운현상에 대한 정의 즉 비음운현상과의 구별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음운현상이란 “음운론적(음성적) 동기와 조건에 의한 음운 단위의 변화”로 정의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떤 현상이 음운현상으로 확정 되려면 음운론적 동기나 조건 등이 그럴듯하게 제시되어야 한다.

음운현상에 대한 비음운론적 제약을 지적하는 논의 중에는 비음운현상을 음운현상으로 혼동한 예들이 있다. 그 한 예가 앞에서 본 체언의 재구조화 과정에서의 2단계 변화이다. ‘무릎>무릅’의 예를 보자.

/무릎/:	/무릎+이/	/무릎+을/	/무릎+도/
① ㅍ→ㅂ	—	—	[무릅도]
②	[무릅이]	[무릅을]	

/무릎/이 曲用할 때 子音으로 시작되는 조사와 결합하면 ‘ㅍ’이 ‘ㅂ’으로 중화되는 것은 분명 국어의 음절구조제약에서 비롯되는 음운현상이다. 물론 用言 活用的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그러나 일부 발화에서 관찰되는, 모음 앞에서 [무릅]이 되는 ②의 경우는 음운현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음운론적 동기나 조건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동기와 조건을 따진다면 ‘이강

단일화' '曲用에서' 등의 형태론적 동기와 조건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②의 변화는 애당초 형태론적 현상으로 파악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막연히 음운현상으로 봄으로써 ①의 음운현상이 적용 환경이 넓어졌다는가 혹은 비음운론적 조건이 작용한다는 식의 부자연스러운 논리를 끌어들이게 된다. 애당초 음운현상이 아닌 것을 음운현상으로 보았을 때 거기에 비음운론적 제약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方法論적으로도, 어떤 현상이 '음운현상'인지 '비음운현상'인지 불확실할 때, 그 현상의 조건에 따라 그것을 판단하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무작정 '음운현상'으로 단정하고 나서 다시 '비음운론적 제약'이라는 단서를 붙이는 것은 매우 부자연스러운 論理라고 생각된다.

## 2. 音韻規則의 타당성

근래에 일반화된 음운현상의 기술방식 즉 '기저형  $\xrightarrow{\text{음운규칙}}$  표면형' 식의 생성음운론모델에서 큰 문제 중의 하나는 具體的인 것은 표면형 뿐이고 '기저형'이나 '음운규칙'은 추상적이고 상호 의존적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음운규칙'이나 '기저형' 어느 한쪽도 독자적으로는 결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말한다. 예를 들어 '불다'(吹)의 活用形으로 '분'과 '불은'이 존재하는데 이 두 표면형이 '기저형'부터 다른 것인지, 아니면 같은 기저형인데 음운규칙에서 달라지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어렵다. 만약 모두 /불+은/이라는 기저형을 가정하면 [분]의 경우는 2개의 음운규칙('ㄹ'탈락, '으'탈락)을 필요로한다. 그럴 경우 'ㄹ' 아래에서의 '으'탈락규칙은 수많은 예외에 직면하게 된다.

물(水)+은→\*문(曲用)

물으니(問)→\*무니, 이르고→\*일고

이러한 예외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비음운론적 제약' 등의 새로운 이론을 끌어들이기 이전에 생각해 볼 것은 '으'탈락규칙 혹은 '기저형'의 타당성이 입증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만약에 기저형을 달리 즉 '불은'의 경우는 /불+은/으로, '분'의 경우는 /불+ㄹ/으로 가정하면 '으'탈락규칙 자체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음운규칙에 대한 例外的 처리로서 “非音韻論的 制約”이 논의될 수 있는 것은 ‘기지형’이나 음운규칙의 타당성이 확보된 이후의 문제일 것이다. 기왕에 비음운론적 조건이 작용한다고 지적된 음운규칙들 중에는 규칙의 성격이나 조건이 불투명한 예들이 있다. ‘短母音化’의 경우를 보자.<sup>9)</sup>

꺾다(賸) 꺾고 꺾지 꺾아서 꺾니  
 좋다(好) 좋고 좋지 좋아서 좋으니  
 담다(澁) 담고 담지 담아서 담으면

위 예에서 모두가 用韻 어간의 음강은 어미에 따라 교체되는데, 이 경우에 쌍행 어간을 설정하지 않는 한 장모음을 기지형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던 문제는 어떤 조건에서 단모음으로 변하는가인데 李秉根(1979)에서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할 때 단모음화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그러나 모음 앞에서 장모음이 단모음으로 변하는 ‘음운규칙’을 설정했을 때 우리는 곧 수많은 문제에 직면하게 된다. 즉 活用만이 아닌 曲用이나 派生등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子音 앞에서도 단모음화가 생기고, 모음 앞에서라도 단모음화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子音 앞에서 단모음화 하는 경우를 보면

- |            |             |
|------------|-------------|
| ① 꺾다→꺾기다.  | 꺾다→꺾기다(使被動) |
| ② 뭉다→뭉보다.  | 꺾다→꺾뭉다(複合)  |
| ③ 꺾다→꺾이    | 뭉다→뭉이(名詞派生) |
| ④ 꺾다→꺾뜨리다. | 꺾다→꺾다랴다.    |

반대로 母音 앞에서도 단모음화되지 않는 경우를 보면 曲用, 副詞派生 등을 들 수 있다.

- ① 꺾(粟) 꺾이 꺾은 꺾도 (曲用)
- ② 꺾다 → 꺾이 꺾다→꺾이 (副詞派生)

이처럼 음강의 교체가 후행하는 음의 자음/모음 여부와 무관함을 보여주는 예들이 많은데 유독 活用の 경우만은 중시하여 모음 앞에서 단모음화한다는 규

9) 短母音化 現象에 대한 논의로는 金定植(1971) 李秉根(1979) 金鎮宇(1976)등 참조.

칙을 고수하고 다른 경우는 별개의 규칙 혹은 비음운론적인 제약으로 돌리는 태도에는 얼른 찬성하기 어렵다. 모음 앞에서 단모음화한다는 규칙 자체가 用言活用の 경우에만 국한시킨 관찰에서 포착된 ‘가정’에 불과하며, 이것은 일반 음성학적으로도 보편성과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이미 金鎭宇(1976)에서도 지적된 것처럼 活用の 경우 단모음화 될 때의 어미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우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상식적인 판단으로, 단모음화와 반대인 장모음화 현상의 성격이 音節數의 감소에 대한 보상이라면 단모음화 역시 음절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우연인지 모르지만, 단모음화와 무관한 조사나 자음으로 시작하는 활용어미는 대개가 단음절이고,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는 대개 2음절이라는 차이를 보인다. 재미있는 것은 음운론적 조건이 동일한 名詞派生과 副詞派生에서 단모음화가 달리 실현된다는 점이다. 여기에서도 名詞, 副詞라는 非音韻論的인 조건이 음장의 변화에 관여한다고 보는 것보다는 양자의 음절수의 차이를 지적하는 것이 훨씬 자연스러울 것이다. 파생접사는 모두 /-이-/ 이지만 실제 발화에 등장할 때는 파생명사는 대개 뒤에 조사가 결합되고, 파생부사는 그대로 쓰이므로 결국 전체적인 음절수에 차이가 생기기 때문이다. (예 : 길이가 길다/ 길이 간직하다. )

본 논의에서는 단모음화 현상을 체계적으로 논의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단모음화 현상을 근거로 해서 “음운현상에 대한 비음운론적 제약”의 증거로 삼기에는 아직 단모음화 규칙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것을 지적하려는 것 뿐이다.

### 3. 音韻論의 영역

음운현상과 비음운현상을 구별하는 것은 곧 음운론의 영역을 분명히 하는 작업이기도 하다. 앞의 논의에서도 지적했듯이 形態音素의 변화에는 음운변화만이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포면적으로 얼핏 음운변화와 유사한 비음운현상도 많이 작용한다.<sup>10)</sup> 우리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제까지 형태음소의 변화에 대해 음운론적 조건이 발견되기만 하면 주로 음운론적 관점으로만 접근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맘이 > 뱀이’의 변화는 주로 音韻論에서 유

10) 전통적으로 언어 변화(외형성)의 요인으로 음운변화, 차용, 유추 등이 지적되어 왔다.

소의 변화라는 측면에서만 다루고 있는데, 음소의 변화라는 것은 곧 형태소나 단어의 변화를 뜻하는 것이며 따라서 이 변화의 논의에서 형태론이나 어휘론적인 측면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어휘변화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 변화는 2단계로 구분될 수 있다.

- ① 음운변화를 통한 개신형의 등장
- ② 기존형과 개신형 사이의 경쟁과 기존형의 소멸

따라서 이른바 Umlaut의 경우에 음운론에서 담당할 영역을 정확히 한정한다면 ①단계 즉 개신형이 등장하는 과정까지이며, 그 내용은 모음변화의 조건이나 동기 그리고 변화의 성격 등을 규명하는 작업이 될 것이다. 개신형과 기존형이 공존하든지 혹은 어느 한쪽이 소멸하든지 하는 것은 어휘론의 영역이 될 것이다. 여기에는 ‘어휘자질’ ‘동음충돌’ 등 어휘론의 고유한 조건이 작용할 것이다. 우리가 보통 통시적 변화라고 하는 것은 개신형이 기존형을 물리치고 살아남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나 반드시 모든 경우에 개신형이 기존형을 누른다고만 단정할 수는 없다. 형태론적으로나 어휘론적으로 개신형이 기존형보다 불리한 경우를 쉽게 상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법(法)이’와 ‘뱀이’가 경쟁한다고 하면 고유음을 가진 漢字語라는 점과 曲用 paradigm이 꾸준히 어간 단일화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법이’가 살아남고 ‘뱀이’가 결국 소멸될 것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問題는 여러 측면(영역)이 복합된 ‘Umlaut’ 등의 통시적 변화를 음운론적인 측면에서만, 그것도 쉽게 공식적인 규칙으로 단정함으로써 음운론 밖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비음운론적 제약”이라는 논리를 자초한다는 것이다. 음운론에서 비음운론의 영역을 침범한 한 예를 보면 음운규칙을 필수적규칙과 수의적규칙으로 구분하는 것을 들 수 있다. 필수적 규칙이란 결국 규칙이 적용된 개신형만 남고 기존형은 소멸된 경우를 뜻하며 수의적 규칙이란 개신형과 기존형이 의미차 없이 공존하는 경우를 지칭하는데, 음운규칙에는 오직 적용/비적용의 구분만이 가능하지 ‘필수적/수의적 적용’이란 있을 수 없다. 어휘에 따라, 개신형과 기존형이 공존하든지 혹은 개신형이 소멸하든지 기존형이 소멸하든지 하는 것은 어휘론적인 문제이며 이것을 음운론에서 설명하려는



것은 지나친 욕심이다. 욕심의 결과는 음운론에 어휘론적 제약을 언급하게 되는 악순환을 낳는다.

음운론의 영역을 엄격히 한정하는 입장에서 비음운론적인 제약이 작용한다고 지적된 Umlaut 의 경우를 보기도 한다.

- |            |         |
|------------|---------|
| ① 먹이다→뻘이다  | 잡히다→잡히다 |
| ② 주먹이→*주매이 | 꿈이→*꿍이  |
| ③ 아미→애미    | 어미→에미   |
| ④ 어디→*에디   | 기미→*게미  |

Umlaut 를 현대국어의 공시적인 음운규칙으로 전제할 때

- ① 派生에는 적용되고
- ② 曲用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 ③ 제언의 형태소 내부에서는 적용되고
- ④ ③의 경우는 많은 예외가 있다.

는 기술이 필요하다. 우선 ①②③을 보면 규칙의 적용 여부는 형태론적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 듯이 보인다. 그러나 애당초 Umlaut 가 공시적 규칙이라는 전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된다. 그 근거는 형태론적 조건까지 동일한 경우에도 (③④의 경우) Umlaut 가 적용되지 않는 예들(④의 예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④의 예들은 통시적으로 Umlaut 변화가 진행된 시기에는 Umlaut 의 조건이 아니었음이 지적되었는데,<sup>11)</sup> 이 사실은 Umlaut 가 현대국어까지 계속 규칙으로서의 힘을 갖지 못함을 뜻하는 것이다. Umlaut 를 공시적 규칙이 아닌 통시적변화로 전제하고, 규칙으로서의 힘을 가졌던 시기까지 소급할 때, 그 성격이나 예외 등이 정확히 이해될 수 있다. Umlaut 의 예외처럼 보이는 ④의 예는 Umlaut 가 규칙으로서의 힘을 상실한 뒤에 Umlaut 와 同一한 조건이 만들어진 경우이므로 변화를 겪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Umlaut 가 발생했던 시기에는 ②와 같은 曲用의 경우에도 Umlaut 현상이 적용되었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서 Umlaut 의 적용 대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改新形이 등장했었느냐를 의미하는 것이지, 改新形이 기존형을 물리쳤다는지 혹은 공존하여 현대국어까지 존속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

11) 金完鎭(1971)

는 것은 아니다. 자료의 성격상 당시에 曲用의 경우에도 Umlaut를 겪은 改新形이 보편적으로 등장했었는지의 여부는 단언할 수 없으나<sup>12)</sup> 현재 일부 발화들에서 ‘뱀이’(法) ‘뱀이’(心) 등이 나타난다는 사실은 그 가능성을 충분히 시사한다고 하겠다. 曲用에도 Umlaut가 적용되었다고 가정하면, 결론은 派生이나 형태소 내부에서의 경우에는 改新形이 기존형을 물리치거나 공존하여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으나 曲用의 경우에는 改新形이 오히려 살아남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음운론 영역 밖의 문제로서 해당 영역에서 쉽게 설명될 수 있다. 우선 형태론의 차원에서 曲用의 경우는 어간단 일화를 계속 指向하므로 ‘뱀이’ 등이 살아남기 어렵다. 또한 일단, ‘뱀이’가 기존의 ‘뱀이’를 눌렀다 해도 새로운 곡용 절차(제구조화)에 의해 ‘뱀이’는 계속 등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派生이나 형태소 내부의 경우에는 음운변화를 겪은 개선형이 생겨도 기존형보다 불리한 점이 없으므로 살아남기가 쉽다. 형태론적인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Umlaut에 대한 우리의 논의를 요약하면 우선 Umlaut 변화란 특정 시기에 발생했던 현상으로 현대국어에서는 이미 구속력을 가진 규칙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sup>13)</sup> 규칙으로서의 힘을 잃은 뒤에는 동일한 환경이 만들어져도 변화는 생기지 않는다. Umlaut를 현대국어의 공식적 규칙으로 설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으며 時間的인 간격을 무시하는 것이다. Umlaut가 진행되었던 시기와 현재는 음운체계도 다르며 그 사이에도 여러 변화들이 진행되어 Umlaut의 조건과 동일한 환경이 새로 생기거나 Umlaut의 흔적을 지워버릴 수 있다. 또한 Umlaut에 대한 음운론의 영역은 Umlaut를 겪은 改新形이 등장하기까지의 과정이지 개선형이 기존형을 소멸시키는 단계까지를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공존하느냐, 어느 한쪽이 소멸하느냐 하는 것은 음운론 밖의 문제이다. 비음운론적인 조건들이 작용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음운론 밖의 문제에서인 것이다.

12) 자료가 문헌에 나타난 문자 표기들이기 때문이다. 개선형이 등장했다 하더라도 개선형이 기존형보다 우세하거나 기존형이 소멸된 이후에나 문헌에 등장한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일 것이다. 물론 똑같은 조건은 아니겠지만 현대국어에서 보더라도 디스크에서의 많은 음운현상들이 반드시 表記를 통해 노출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은 불명하다.

13) 물론 현대국어에서도 음부방언을 엄격히 한정하면 Umlaut현상 자체가 부정되고 Umlaut변화가 있었던 남부 방언에서의 借用으로도 볼 수 있다. 음운변화와 차용의 구별도 이런 간단한 것만은 아닐것하다.

## 4.

이상 음운현상에 비음운론적인 조건이 작용한다고 지적된 몇가지 경우를 살펴보았다. 우리의 결론은 비음운론적인 조건들이 작용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비음운현상에서일 뿐이라는 것이다. 음운현상에 비음운론적 제약이 가해진다고 지적한 논의들에서는 비음운현상을 음운현상으로 혼동하거나, 음운론 밖의 영역을 음운론으로 끌어들이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기존의 논의에서 비음운론적인 제약이 작용한다고 지적된 예는 우리가 살펴본에 말고도 많다. 여기에서 그 모든 경우를 일일이 논하지는 않지만 결론은 동일하다. 거기에는 공통적으로, 불투명한 전제에서 출발하여 생기는 문제점들에 대해 애당초의 전제로 되돌아 보지 않고 자꾸만 새로운 전제를 끌어들이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그것은 마치 하나의 전제와, 거기에서 자동적으로 파생되는 다른 하나의 논리를 발견하므로써 마치 두가지가 모두 설명되었다는 식의 착각이다.

## V. 맺 음 말

많은 사람들이 실제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언어를 ‘연구한다’고 하는 것은 ‘창조’가 아니라 기존현상에 대한 지적과 기술 그리고 이해를 위한 노력이다. 같은 현상에 대해 논의가 계속 반복될 수 있는 것은 ‘지적’ ‘정리’ ‘이해’ 과정에서 方法論상의 선·악이 있을 수 있으며, 완전한 지적, 간결한 기술, 쉬운(사실의) 설명을 指向하기 때문이다.

불확실한 전제에서 출발한 논의는 어디까지나 불확실한 것일 수밖에 없다. 확실하게 검증된 논리들을 확보 축적하는 것이 언어학이 발전하는 것이며, 동시에 언어학의 목표가 된다.

본 논의의 관심은 “음운현상에 비음운론적인 제약이 작용한다”는 논리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II 장에서는 형태소 경계에서의 음운현상의 논의에 대한 전제가 되는 형태론의 문제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였다. 이것은 구체적인 음운현상의 논의에

알기 확실한 형태론적 전제를 얻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다.

얼핏 생각하면 ‘꿈이→\*꿨이’ 등은 ‘음운현상에 대한 형태론적 제약’으로 파악하는 것이나 우리의 논의처럼 ‘형태론의 영역에서’ 파악하는 것이 表現上の 차이에 불과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나, 사실은 문제를 보는 시각의 차이는 대단히 크다고 생각한다. ‘형태론적 제약’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음운론이 주가 되고 보조적인 (예외 처리를 위한) 수단으로 형태론적 정보가 이용되는 것이고, ‘형태론의 영역으로’ 설명하는 것은 음운현상과는 별개의 형태론적 현상을 발굴하는 것이다. 전자는 活用/曲用 등의 형태론적 조건이 음운현상에 관여한다고 보는 것이지만 후자는 음운현상이 아닌 형태론적인 현상에 관여한다고 보는 것이다. 또한 음운현상에 비음운론적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전자의 논리는 “어떤 비음운론적인 조건이, 어떤 음운현상을, 왜 제약하게 되는지”를 설명해야 되는 불가능한 부담도 안고 있다.

음운변화란 대개 意識的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이다.<sup>14)</sup> 따라서 일반 언중이 무의식적인 상태에서는 인식하기 어려운 活用, 曲用, 派生 등의 문법적인 조건들이 음운규칙의 적용, 비적용을 결정짓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음운현상이 아닌 형태론적 현상(재구조화등)도 역시 무의식적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 있다. ‘값이>갸이’의 변화는 ‘값도’ ‘값’ 등에서 무의식적으로 어간을 /갸/으로 잘못 인식하고, 여기에 조사 /-이/를 결합시키므로써 [갸이]가 등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무의식적인 오류에서 등장한 [갸이]는 결과적으로 어간을 단일화시키므로써<sup>15)</sup> 기억부담을 줄이는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므로, 사라지지 않고 生命力을 가진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用言 活用에서는 생기지 않는 것은 用言이란 언어 수행에서 어간, 어미가 떨어졌다 붙었다 하지 않으므로 무의식적인 어간 인식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음운론적 조건은 음운현상에, 형태론적 조건은 형태론적 현상에만 작용한다는 것은 증명이 불필요한 지극히 상식적인 論理인 것이다. 왜냐하면 애당초 음운현상과 형태론적 현상의 구분은 그 조건의 성격에 따라 결정되는 것

14) 교육등 의식적인 행위는 대개 무의식적인 변화를 막는 보수적인 성격을 띤다.

15) 결과적으로 어간이 단일화된다는 것이지 의식적으로 단일화시키려는 노력이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이기 때문이다. 만약 정말로 음운론적 조건과 형태론적 조건이 동시에 작용하는 현상이 있다면, 그것은 음운현상도 형태론적 현상도 아닌 제3의 이름(형태음운현상등)을 가져야 하며, 이 경우도 “음운현상에 대한 비음운론적 제약”이라는 논리가 成立되거나 必要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 참 고 문 헌

- 金完鎭(1971), 〈音韻現像과 形態論的 制約〉, 《學術院論文集》(人文·社會科學篇) 10.
- \_\_\_\_\_ (1972), 〈形態論的 懸案의 音韻論的 克服을 爲하여〉, 《東亞文化》 11집
- 김진우(1976), 〈國語音韻論에 있어서의 母音音長의 機能〉, 《語文研究》 9. 忠南大
- 李基文(1962), 〈中世國語의 特殊語幹交替에 대하여〉, 《震檀學報》 23.
- 李秉根(1979), 〈音韻現象에 있어서의 制約〉, 塔出版社.
- 洪允杓(1977), 〈不具動詞에 대하여〉, 《李崇寧先生古稀紀念 國語國文學論叢》.